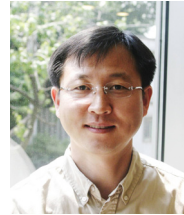


이탈리아 소수민족 연구

이 창 현 (KOTRA · 언론학 박사)
(chnghyn2@naver.com)



본고의 작성 목적은 오랜 제국의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에서 소수민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켜가고 있는지 혹은 잃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며, 나아가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나라가 생존과 영속적인 번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4년간 이탈리아에서 주재원으로 생활할 때 우연히 이탈리아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먼저 라딘인(Ladin)들이다. 이들은 2000여년이나 상당히 고립된 환경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이 생활하는 곳을 방문해서 왜 이들이 이탈리아에 살면서도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지 인터뷰하고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답았다. 그 뒤에 다른 소수민족을 접촉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북한 2천 5백만명으로 남북한 합치면 약 7천5백만 명이다. 영국 6천4백만명, 프랑스 6천6백만명, 독일 8천만명, 이탈리아 6천만명에 비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강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봤을 때, 이웃 중국인구 13억 7천만의 3.7%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 전체 인구가 약 20억에 달하는데, 이들을 다 주변세력으로 봤을 때, 2.5%에 불과하다.

결코 적지 않은 인구수와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이지만, 주변의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 때로는 약소국의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오랫동안 다수 민족 틈바구니에서 훌륭하게 잘 살아남은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혹은 사라져가는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기존 서방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얻던 바를, 서방 선진국 혹은 서방 제국주의의 강력한 통제하에서도 훌륭하게 살아남은 선진국 소수민족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이탈리아의 소수민족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병용했다. 이탈리아어에 능숙하지 못해 보다 심도 깊은 자료를 획득하지 못한 측면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문화인류학이나 언어학, 역사학 등과 같은 분야의 내용이 아닌, 국가브랜드라는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들 민족들의 현상을 이해하고 설정한 가설을 파악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저자의 언어적 역량의 한계가 많아, 본고는 이런 형태의 연구를 위한 하나의 새로운 접근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 필자주

I. 이탈리아의 지리적 특성과 소수민족 현황

이탈리아는 지중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동서남쪽 3면이 바다이다.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대륙과 연결된 북쪽은 해발 3~4천 미터의 알프스라는 고봉준령으로 에워싸여 있다. 전국토의 80% 가까이가 산악지대(구릉을 포함한 산악지대)로 구성된 나라다. 길이는 남한의 3배정도 되며, 면적은 3배이다.

이 나라의 접경지대 즉 산악과 해안에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살고 있으며, 그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말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남쪽의 그리스와 가까운 곳에서는 그리스인(Griko)들이 모여 자신들의 말을 유지하고 있고, 북서쪽 프랑스와 가까운 곳에서는 프랑스말을, 북쪽의 오스트리아와 가까운 곳에서는 독일어를, 북동쪽의 슬로베니아와 가까운 곳에서는 슬로베니아어를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어나 독일어, 슬로베니아 어를 쓰는 이들의 말은 본토의 표준어와 서로 소통이 안될 만큼 강한 사투리이지만 프랑스어나 독일어, 슬로베니아어가 분명하다.

유럽연합이라는 국가 간의 연합 속에서 소수민족의 이슈가 대두되었다. 경제적 통합을 이룩해서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맞서기 위해, 그리고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열되어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유럽을 통합하다 보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큰 국가들(인구, 영토, 사용언어 등)이 있는 반면 상대적 소수국가가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소국 몰타는 몰타어를 쓴다. 인구 50여만명에 불과하지만 EU의 공식언어다. EU체계가 등장하면서

이런 소국가 혹은 소수언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EU가 통합되면서 소수언어와 문화를 보호한 자세한 원인이나 이유를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 아니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연도별 어떠한 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소수민족들과 라딘인(Ladin)들의 자치 강화를 위한 대외적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EU 라는 연합체내에서 1995년 1월에 22개 참여국가간에 ‘소수민족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of January (1995))가 이루어 졌다. 이탈리아는 1999년 12월 15일 발효된 법률조항 482에 의해 알바니아어, 까팔루니아어, 독일어, 그리스어, 슬로베니아어, 크로아티아어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프랑스어, 프로방스 프랑스어, 프리올리어, 라딘어, 옥시탄어(프랑스 남부지역 프랑스어), 사르데니아어 등을 쓰는 사람들의 언어 사용권을 보호 법률에 명기하였다.

〈해당법률: 이탈리아어 원문〉

Legge 15 Dicembre 1999, n. 482 art 2

In attuazione dell'articolo 6 della Costituzione e in armonia con i principi generali stabiliti dagli organismi europei e internazionali, la Repubblica tutela la lingua e la cultura delle popolazioni albanesi, catalane, germaniche, greche, slovene e croate e di quelle parlanti il francese, il franco-provenzale, il friulano, il ladino, l'occitano e il sardo.

여기서 언어와 문화를 보호해야할 소수민족의 범위에 알바니아어, 까팔루니아어, 독일어, 그리스어, 슬로베니아어, 크로아티아어 사용자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프랑스어, 프로방스 프랑스어, 프리올리어, 라딘어, 옥시탄어(프랑스 남부지역 프랑스어), 사르데니아어는 언어만을 명기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추측컨대 이들의 문화가 이탈리아의 인종, 문화 및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전자는 인종이 완전히 다르거나, 아니면 종교가 로마카톨릭이 아니다. 하지만 후자의 종교는 로마카톨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직접 찾아가 살펴본 알프스 북부의 두 소수민족과 남부 이탈리아의 두 소수민족에 대해서 언급한다. 먼저 알프스 북부의 두 소수민족은 레토로망스어(Rhaeto-Romance languages) 군의 일종으로 2000년 전의 로마어의 원형을 간직한 로망쉬어와 라딘어를 쓰는 두 이탈리아 북부의 2개 소수민족이 대상이다.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의 두 소수민족은 이탈리아 남서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가장 큰 섬인 시칠리아에 있는 600년 전에 이주해 와서 알바니아어를 쓰는 사람들과 이탈리아 남동쪽 풀리아(Puglia)

지방에서 고대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다.

이탈리아 법률에 의해 이들 소수민족들의 언어와 문화가 보호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터뷰 등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많지 않고 더구나 한국에 소개된 것은 저자가 이해하는 한 거의 전무하다.

알프스의 두 소수민족 중 라딘인(Ladin)은 사용인구가 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 북부에서 로망쉬어(Romansh)를 사용하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들의 언어를 거의 잃었다(현재 스위스 지역의 로망쉬어 사용자도 과거에 비해 줄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 남서부 시칠리아섬의 알바니아인(Albanian)은 인구변화가 크게 없으며, 남동부 푼리아지방의 그리스인(Griko)들 중 그리스어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언어 사용측면이나 집단의 크기 측면 등에서 다소 상반되지만, 이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차별화된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모여 사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그들의 생존의 기저에는 강한 민족적 자긍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포함한 6개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했다. 회귀성과 군집성,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 자구노력과 법률제정 등 주변의 인정을 획득하는 것, 현실지향적인 것, 주변 국가·민족의 언어를 익히는 것 등이다.



〈그림 1〉 연구대상 4개 소수민족의 위치

초기 가설은 이들이 여타의 소수자들의 특성처럼 강한 자체적인 응집력과 주변부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불굴의 노력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해 왔고, 그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부에 의해서 소규모의 사회가 유지된다고 봤다. 대부분의 화교나 유대인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직접 인터뷰 한 결과는 이런 초기의 가설이 각각 집단의 응집력 강화에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나 민족적 자긍심은 집단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존속하게 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물론 이때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만한 경제적 여유는 있어야 한다.

II. 알프스의 두 소수민족

현존하는 레토로망스어군에는 3개의 언어가 있다. 스위스 국가 공용어의 하나인 로망쉬어(Romansh)와 이탈리아에서 소수언어여서 이탈리아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라딘어(Ladin), 프리울리어(Friuli)이다. 이들 언어는 2000여년전 로마의 알프스 정복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재 이들 언어별 사용자 수는 프리울리어가 80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라딘어(3만 9천여명)와 로망쉬어(3만 6천명)는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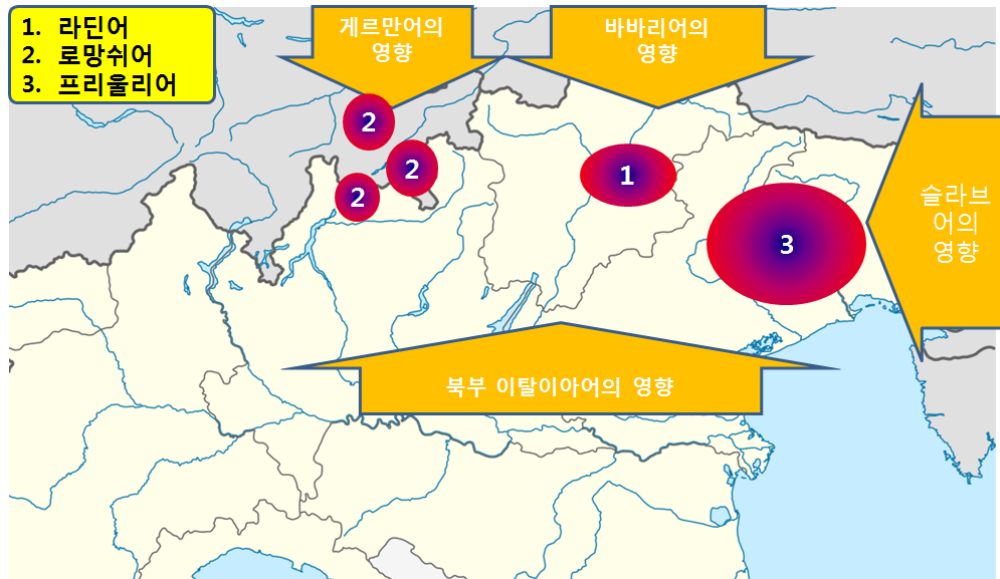
라틴어군에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프랑스어가 포함되어 있듯이 레토로망스어군에 라딘어, 로망쉬어, 프리울리어 이 3개의 언어가 포함된다. 스페인어는 유럽 이베리아에 있는 스페인 사람들과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에서 캐나다와 미국,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국가 사람들인데, 이들은 인종적으로 서로 다르다. 중남미라고 하더라도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는 인종과 문화적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하지만 라딘어를 쓰는 사람들은 인종적 측면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3개 언어를 쓰는 집단을 어족으로 지칭하고, 각각을 하나의 민족으로 본다.

여기서 이 소수민족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한국의 오늘날 현실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소수민족들은 주변의 강대국인 이탈리아와 독일(오스트리아)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최근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남았다. 물론 최근 들어 스위스의 로망쉬어족은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라딘어족 또한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20개 자치주 중의 하나인 프리울리 주에는 레토로망스 어족의 하나로 분류되는 프리울리어를 쓰는 사람이 약 800,000명이나 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비록 이 프리울리어를 쓰는 사람들도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외부 유입인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말이다.

이들 3개의 언어는 로마시대 군인들과 상인들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생긴 말이다. 로마의 군인에 의해 정복당한 피정복민들이 로마 군인들과 상인들이 사용하는 로마어를 받아들였다. 당시 입말 즉 구어체의 로마어는 로마의 상인이나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하는 말로서, 문자로 기록하는 로마어(라틴어)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원주민들은 구어인 로마어를 받아들이면서 로마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지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남쪽인 로마에는 눈사태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알프스에는 크게 2종류의 눈사태가 발생한다. 하나는 눈사람을 만들 때처럼 눈이 뭉쳐서 굴러 떨어질 때 발생하는 눈사태이고, 다른 하나는 눈더미 자체가 거대한 얼음덩어리처럼 한꺼번에 확 밀려 내려오는 눈사태이다. 이런 경우를 표현하는 단어 자체가 로마 단어에는 없었다. 따라서 이런 단어들은 현지어를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레토로망스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림 2〉 레토로망쉬어 사용자의 분포와 위치 : 언어별 강한 영향을 끼친 언어

물론 이 내용은 아직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레토로망쉬어계의 3개 언어는 각각 주변 국가들의 언어와 결합하거나 영향을 받으면서 분화해 갔다. 이탈리아 동북부의 돌로미티 지역에서 사용되는 라틴어는 게르만어의 일파로 구분되는 바바리어(Bavari, Bavarians, 바이에른인, 현재 독일의 뮌헨 근처를 근거지로 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어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탈리아 북부 산악지역인 스위스와 접경지역에서 사용되는 로망쉬어는 게르만어(독일어)의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 바바리어는 게르만어(독일어)족의 일파로 알려져 있으나, 독일어와는 상당히 다른 언어라는 설도 있다. 한편 프리올리어는 슬라브어의 강한 영향을 받아, 라틴어와 로망쉬어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 3개 언어 중에서 라틴어와 로망쉬어가 상대적으로 유사하다고 한다.

라틴어와 로망쉬어의 언어체계는 매우 유사하고, 많은 단어들 또한 닮았다. 다만 발음이 많이 다르고, 상호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이자 공통점이다. 많은 명사들의 발음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처음 듣게 된다면 이해하기 힘들다. 또 하나, 현지의 다른 언어와 동화하면서 새로운 단어들도 많고, 또 독일어 혹은 바바리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 몇 개의 언어가 뒤섞인 형태의 언어라는 점이다. 하지만 기본 어순 등은 입말로 사용되던 로마어의 문법을 그대로 따랐다.

로망쉬어는 로마어와 현지어가 섞인 언어에 북부 이탈리아어와 남부 독일어가 섞여서 만들어진 언어라는 것이다. 현재의 이탈리아어와 독일어 둘 중의 한 두개 언어에 더 가까울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에 상대적으로 쉽게 동화된다고 말하는 주장도 있다. 반면 라틴어는 바바리어의 강한 영향과 슬라브어의 약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즉 기존의 고대 로마어에 원주민어가 섞였고, 뒷날에 북부의 바바리어와 슬라브어, 북부 이탈리아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어나 이탈리아어로 쉽게 동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로망쉬어는 스위스의 공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용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스위스 전체 인구 8백만명의 1%인 8만명 이하로 집계된다. 더구나 로망쉬어족은 1% 수준이나, 로망쉬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0.5%에 불과하다고 한다.

스위스에서 로망쉬어를 쓰는 사람들은 크게 산지 높은 곳에 거주하는 집단과 낮은 곳에 거주하는 집단 2개로 구분된다. 이 2개 집단은 로망쉬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독일어로 이야기를 나눈다. 매년 초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대해서 유명세를 떨치는 다보스 포럼이 개최되는 다보스(Davos) 지역이 바로 대표적인 로망쉬어족들이 사는 곳이다. 다보스 지역이 관광 등으로 대폭 개발되면서 수많은 외부인들이 유입되었고, 원주민이던 로망쉬어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들어 이들 로망쉬어족의 보금자리이자 요람이 깨어진 셈이다.

라틴어족과 로망쉬어족 두 소수민족은 유사한 측면이 매우 많다. 산속 계곡에서 생활하고, 양이나 염소를 키워 젖을 얻고, 그 젖으로 치즈와 버터를 만들어 식사와 주재료로 사용한다. 우연히 두 집단이 모두 지계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마 산악지역에서 물건을 나를 때 유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하긴 바퀴의 발명과 이용은 평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런 산악지역에서 바퀴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놀랍도록 우리나라 지계와 형태와 사용처가 동일한 이 도구를 보면서 한국의 문화와 연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문화접변에 의한 전파인가 아니면, 산악생활에서 생긴 자생적인 것인가? 이웃한 중국에서 지계를 사용한 예가 잘 보이지 않고 있고, 일본의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한국의 영향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계라는 도구가 언제 발명되어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산악 민족을 제외하고는 지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독일인들도, 이탈리아 인들도. 아마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사라졌을 것으로 믿는다.

2-1. [돌로미티 라딘인들(Ladin ; Romansh)]

카롤리나 코스트너(Carolina Kostner).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을 때, 동메달을 받아 이탈리아인으로서 최초로 피겨 스케이팅 분야 올림픽 메달 획득. 5회에 걸친 유럽 챔피언십과 5회에 걸친 세계챔피언십 메달리스트.

조르지오 모로더(Giorgio Moroder). 1970~80년대에 신시사이저를 통한 혁신적인 연주로 전자 음악, 뉴 웨이브, 하우스, 테크노 음악 등에 큰 영향을 주었던 천재적인 작곡가. 1978년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의 영화 음악 작곡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고, 1984년 《플래시댄스》의 삽입곡 〈Flash Dance - What a Feeling〉으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1987년 영화 《탑 건》의 삽입곡 〈Take My Breath Away〉로도 아카데미 주제가상 수상.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탈리아 북동부 알프스 중심부에 있는 돌로미티 지역(남티롤, South Tyrol) 출신이다. 이 지역은 해발 2,000~3,000미터의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다. 그 산골짜기에 모여 살던 사람들 중에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라딘(Ladin) 사람들이다. 라틴(Latin)이 아닌 라딘(Ladin)이다. 현재 약 39,000명 정도 살고 있으며, 크게 7개의 부락으로 구분되며, 7개 부락 상호간의 말과 표기법이 약간 다르다.

이들이 쓰는 언어는 현대 이탈리아어와 전혀 다르고, 독일어와도 다르다. 이들은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문법과 문장체계는 고대 로마어와 유사하고, 단어의 많은 부분은 독일어를 닮았다. 이들은 로마 알파벳을 사용한 문자로 기록하는데, 독일어 표기에 사용하는 움라우트(¨)도 사용하기도 한다.(예: I tiers vëgn de)

〈라딘인의 역사〉

이 라딘인은 지난 1985년 정주 2000년이라는 행사를 거행했다. 정주 2000년이란,

기원전 15년(BC15년)을 기준으로 2000년이 경과했다는 말인데, 라틴인이 돌로미티 지역에 거주한지 2000년이 되었다는 말이다.

기원전 15년은 로마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본명 옥타비아누스 Octavianus)가 통치할 때이며, 이때 로마는 알프스 전체를 손에 넣었다. 알프스의 서부지역에서 시작해서 중부·동부지역 순으로 오늘날의 알프스를 점령하고 길을 냈다.

현재 프랑스 남부 지중해 갠느(Cannes)라는 영화제로 유명한 도시 갠느와, 남부 프랑스 해안가의 아주 작은 왕국 모나코(Monaco) 위 근처에 라 듀호비(La Turbie)라는 도시에 그때 당시 로마가 46개의 부족들 연맹과 전투를 벌여 승리했다는 기념물이 있는 것으로 보면, 그 당시에도 산악에 많은 다양한 부족이 살았던 것 같다. 어쨌든 과거의 기록으로 볼 때, 현재 돌로미티 지역인 라이티아(Raetia) 지역이 완전히 로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은 BC15년이며, 이 해를 라틴인 탄생의 기원으로 삼은 것이다.

현재 그곳에는 현지 티롤 지방 사람들과 라틴인들, 그리고 베네치아, 베로나 등 남쪽 이탈리아에서 일자리 등을 찾아 정착한 사람들이 모여살고 있다. 크게 산 중간의 언덕 위와 계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라틴인은 전형적으로 계곡을 차지해 살고 있다.

과거 이들은 자연의 보호 아래서 자신들의 언어와 습속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다른 모든 소수민족들이 겪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마치 우리나라 중소 도시들이 겪는 것과 같이 젊은이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가고 전통문화는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우 건강한 언어적 문화적 생태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

오늘날의 라틴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돌로미티(라틴어로 돌로마이트) 지역인데, 옛날 지명은 라이티아(Raetia, 이들의 언어를 Raetic, Rhaetic, Rhaetian 으로 표기한다)이다. 로마에 정복당하기 전에 이곳에 살았던 종족을 라이티취(raetisch)라고 하는데, 게르만과 켈트족에서 분파된 것이라고 추정한다. 상당히 용맹한 종족이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배계층인 로마어를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현지의 단어와 결합한 방언형태의 언어를 가지게 되었다.

로마지배 이후에는 라이토로미악(raetoromiac)이라고 불렸으며, 오늘날에는 라틴어(Ladin)이라고 부른다. 마치 로마어가 스페인 땅에서 분화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스페인어가 된 것처럼 분화된 로마어의 방언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이 라틴어를 포함한 로망쉬어, 프리울리어를 레토로망스어라고 부르는데, 로망스 어라는 뜻은 로마어 즉 라틴어(Latin) 어라는 뜻이고 그 앞에 붙은 레토(Rhaeto)라는 말은 바로 이 라이티아에서 나왔다. 이 라이티아족은 지금의 중동부 알프스 산악지대를 지배하던 강대한 왕국이었다고 한다.

라틴인이란 현재 이탈리아에 있는 20 주 중의 하나인 트렌티노-알토아디제/수드티롤(공

식명칭은 Regione Autonoma Trentino-Alto Adige/Südtirol)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수드티롤(Südtirol)에서 Süd는 티롤(Tyrol, Tirol)의 남쪽이라는 뜻이다. 그럼 북쪽 티롤도 있을 수 있고, 동쪽 남쪽 티롤도 있을 수 있다. 관용적으로는 티롤, 남티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한다. 본 고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포아디제(Alto Adige) - 수드티롤(Südtirol)을 남티롤로 표기한다. 알포아디제(Alto Adige)는 이탈리아어 식 표기이며, 수드티롤(Südtirol)은 이 주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 언어이자 이탈리아어와 함께 공식 공용어인 독일어식 표기이다. 이 지역에서 쓰는 독일어는 독일에서 통용되는 독일어와는 약간 다른 독일어 방언이다.

1861년 3월 17일 이탈리아 통일 당시 이탈리아 북부지역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당시 독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시아의 비스마르크 수상과 이탈리아 독립의 영웅인 엠마누엘레 2세와의 협약에 따라, 이탈리아는 베니스를 합병했다. 당시 베니스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속국이었다. 1866년의 일이다. 이때 지금의 돌로미티 지역이 포함된 트렌티노-남티롤(Trentino-south Tyrol; Südtirol) 지역은 베니스의 영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 합병되지 않고 계속해서 오스트리아의 관할 하에 있게 되었다. 그 뒤 1919년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승전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연합국들이 패전국인 오스트리아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생제르맹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트렌티노-남티롤 지역은 이탈리아에 속하게 되었다.

당시 다수의 트렌티노-남티롤 주민들은 오스트리아의 영향을 받아 독일어를 사용했으나,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되면서 소수어권으로 정치사회적 지위가 변동되었다. 또한 파시스트인 무솔리니 정권은 이 지역에서 독일어의 학교교육 금지 등 독일어 사용자들을 억압하였으며,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그 뒤 무솔리니 정권은 히틀러 정권과 연합하여 이 지역의 독일어 사용자들을 독일 북부의 독일지역으로 이주시키려는 시도도 하게 된다.

당시 이탈리아는 독일 일본 등과 함께 세계2차 대전을 일으킨 추축국의 일원이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추축국의 패전이 명확한 듯하자, 1943년 9월 8일 독일과의 동맹을 끊기 전에 미국과 먼저 밀약을 하고는 독일을 공격하게 된다. 이때 히틀러는 이탈리아를 배신자라고 칭하면서 가혹하게 이탈리아를 공격한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의 세계2차 대전 기간 중에 이 지역은 독일군의 점령 하에 있었으며, 그 기간 중에 독일어 사용자들에 의한 타 언어 사용자에 대한 억압이 있었다.

제2차 대전 뒤에 ①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접경지대이자 산악지대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와, ② 당시 트렌티노-남티롤 주민의 약 25% 수준인 이탈리아어 사용자 이외의 독일어 사용자를 포함한 타 언어 사용자들 다수는 오스트리아에 편입되기를 바랐던 거주민의 구성과 정서, ③ 동쪽 발칸반도까지 밀고 내려온 소련군의 위협(해발 3000미터 준령들이 수두룩한 돌로미티의 동쪽 지역은 슬로베니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다), ④ 분쟁국 당사자인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간의 정치적 이해, 그리고 ⑤ 당시 이 지역 출신인 이탈리아 수상 알치데 데 가스페리(Alcide De Gasperi)의 지지 등으로 이 지역에서 독일어가 공용어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치지역으로 분류한다. 이 후에 이 지역은 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되는 등 어느 정도 수준의 자치를 누리게 된다.

한편, 1969년까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의 자주결정권을 요구하는 BAS(독일어 : Befreiungsausschuss Südtirol, 약어로 BAS)에 의해 고압송전탑 파괴 등의 테러활동이 있었다. 그 뒤 1972년에 트린티노-남티롤 지역에서 제2기 차지권한이 부여되는데, 건강, 교육, 복지, 도로교통시설 등의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 자치구는 집행의원 35명을 선출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이들 35명 중 1명은 반드시 라딘인(Ladin) 중에서 선출하게 된다. 현재 라딘인은 3만9000명 정도이다.

〈표 1〉 트렌티노-남티롤주의 전체인구 및 라딘인 현황

트렌티노-남티롤 주의 2개현		2001	2011
트렌티노	전체	477,017	526,510
	라딘인	16,462	18,550
남티롤	전체	428,691	453,272
	라딘인	18,736	20,548
계	전체	905,708	979,782
	라딘인	35,198	39,098
	라딘인비중	3.89%	3.99%

그 뒤 1996년도에 유로리전(The Euroregion Tyrol-South Tyrol-Trentino)에 등록했다. 유로리전은 유럽내 2개 이상의 국가 접경에 걸쳐있는 범국가적 협력 기구를 의미한다. 티롤지방은 남티롤과 북티롤(혹은 티롤)로 구분되는데, 북티롤은 현재 오스트리아 영토이며, 남티롤은 이탈리아 영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간의 걸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유로리전의 개념을 차용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다.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는 알페우레지오(www.alpeuregio.org)라는 홈페이지와 이탈리아 볼짜노에 위치한 유로파리전(www.europaregion.info)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유로파리전 홈페이지는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와 더불어 라딘어로도 운영되고 있다.



〈그림 3〉 티롤(Tyrol)지역과 트렌티노(Trentino)

〈지형〉

라딘인들은 도로가 잘 발달할 수 없는 험지에 살았다. 산은 높고 계곡은 깊다. 지리적 특성에 따라 9개로 구분된 이곳은 해발 3,000미터가 넘는 산이 20개이며 1,420km² 넓이로 제주도 면적의 약 77% 수준이다.



〈그림 4〉 (좌)100여년 전의 사진. (우) 최근의 사진

코트티나 담페초 인근에 있는 트레치메((Tre Cime di Lavaredo, 라딘어로 Tré Thime). 해발 2,500미터 전후의 고원. 뒤에 보이는 산이 프레치메라는 산이다. 3개의 큰 봉우리가 보이는데, 가운데 있는 봉우리의 수직적벽의 높이는 550m 이다. 맑은 날이면 베네치아에서 저 3개의 봉우리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베네치아에서 프레치메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 (*위 좌측 사진은 리푸조 리스토란테 오스피탈레(Rifugio Ristorante Ospitale)에 걸려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이 리푸조(산장형 호텔)는 뒤에

소개된다.)

그러니 대부분 고원지대이고, 농업을 할 수 있는 토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은 이런 험지에 살았고 특별한 작물이 없어 상대적으로 가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과 동화되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라딘인들이 모여살고 있는 돌로미티(Dolomiti) 지역은 전체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다. 지형학적으로 희귀한 곳인데, 돌로마이트라는 암석은 석회암이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생겼다. 일반적으로 석회암은 물에 약하다. 물과 쉽게 결합해서 석회암 동굴을 만들거나 풍화한다.

우리나라에서 동강댐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건설계획이 취소되었다. 동강지역은 석회암 지대여서 물을 가두면 스폰지처럼 구성되어 있는 지반에 침하가 생기고, 누수가 발생하며 환경에 좋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런데 돌로마이트라는 광물은 석회암이 마그네슘과 결합한 형태로, 물에 안정적인 구조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풍화도 쉽게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자라기 힘든 지형이 된다. 이를 발견한 프랑스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돌로마이트라고 부른다. 돌로미티의 고원 산악지대에 가면 아예 풀 한포기조차 없는 황량한 곳이 많은데, 그 이유가 단지 수목이 자랄 수 없는 수목한계선 상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돌로마이트라는 광물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돌로미티 지역은 겨울이 6개월 이상이다. 산에 눈이 녹는 시점이 6월은 되어야 한다. 그러니 겨울 스포츠인 스키가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짧은 봄과 여름, 가을은 수많은 산악인들과 피서객, 등산객들이 모여든다. 돌로미티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로 등재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이다. 약 3억 5천만년 전에 바닷속에 있던 섬들이 융기했다. 그 섬의 정상이 지금 3,000미터가 넘는 산봉우리로 변했고, 바닷속에서 조개껍질과 어류의 뼈가 쌓여 변한 석회암들이 표면을 덮고 있다. 곳곳에는 풍화와 눈사태, 빙하의 침식 등으로 형성된 크고 다양한 계곡들이 있다.

〈문화와 생활〉

라딘인들은 다른 산악지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산에서 살면서 소나 양의 젖을 이용한 버터와 치즈를 만들어 먹었고, 산의 나무를 해다가 장작으로 팔았다. 겨울철에 장인들은 산에 지천인 나무를 이용해서 수공예품을 만들어 팔았고, 알프스 북부인 독일 - 오스트리아와 알프스 남부인 베니스, 베로나, 파도바를 연결하는 길목에서 여관업, 식당업 등의 서비스 업종에 종사했다.

지게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면 지게는

한국 고유의 농기계 혹은 한국에서 발명되어 이웃 일본에 보급된 것으로도 나온다. 하지만 이곳 라딘족들은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지계를 만들어서 사용했으며,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다.

지계를 영한사전에 찾아보면 ‘Korean A-Frame’이라고 하는데, 6.25 전쟁 때 이 기구의 편리함을 발견한 UN 군이 사용하던 사진이 있고, 이때 이 지계의 이름을 ‘Korean A-Frame’으로 지었다고 한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마땅한 영어표기법을 찾기가 어려웠다.

라딘인들이 만들어 판매하는 목공예품 중에서 한국의 지계와 유사한 것이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계를 사용해 왔다고 한다. 라딘어로 지계를 ‘La Fiertla’ 라고 한다. 이탈리아어로는 La Gerla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계와 망태기를 혼합한 형태인 것도 있고, 그냥 지계와 거의 똑 같은 것도 있다.

이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지계나 라딘인들이 사용하는 지계나 모두 유사한 개념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길이 없는 곳에서 농사를 짓기에 편리한 농기구를 서로 모방하고 자신에 맞게 개량해서 사용했다. 지금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포도를 수확할 때 쓰는 것은 작고, 단지 바구니를 등 뒤에 맨 형태이며, 나무를 나를 때는 단순하고 튼튼한 흔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모습과 유사하며, 풀을 나를 때는 우리나라 망태기와 지계를 결합한 것과 유사하다. 주로 어떤 용도에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사하게 변형된다.



〈그림 5〉 염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 농부 -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농기구 쟁기와 유사하다.

많은 라딘인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생활방식을 유지해왔다. 숙박업과 목공업에 종사하면서 장난감 같은 것을 만들어 내다 팔았다. 이때 운송도구로 지계를 사용했다.



〈그림 6〉 (좌) 1908년도 찍은 지계를 짊어진 사진. 장난감 말을 나무로 만들어 내다 팔았다.
 (우) 나무를 짊어진 지계. 최근 라딘인의 목공업품. 이 지계(라딘어로 'La Fiertla')는 나무 원목을 운반할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용도에 따라 지계의 다리 모양이 다르다.



〈그림 7〉 (좌)강릉민속박물관과 (우)은양민속박물관에 전시된 지계

〈교육〉

현대 돌로미티의 라딘어족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3개 언어를 동시에 배운다. 라딘어와 독일어, 이탈리아어.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영어를 필수로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많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힘들 텐데, 왜 굳이 라딘어를 고집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이는 바로 라딘인들의 특권이자 혜택이라고 강조한다. 라딘인들은 초등학생들에게 라딘어 수업을 정식 교과과정에 넣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북부 이탈리아인과 남부 독일인 사이에 위치한 곳에서 생활하려면, 이탈리아어와 독일어, 영어(다른 국가에서 여행 온 관광객을 상대)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활동과 직결되어 있다. 이것이 주변의 다수민족 사이에서 현명하게 잘 살기 위한 교육책이자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한다.

외국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몇 가지 경험을 덧붙이자면, 외국어라는 측면에서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인 프랑스와 슬로베니아의 방문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남부 프랑스의 니스(Nice)나 칸느(Cannes)지역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차로 4~5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유명한 지중해의 휴양지여서 이탈리아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 남부 프랑스 사람들은 이탈리아어를 거의 하지 못한다. 그곳 해변의 가게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볼 수 있었지만, 프랑스인들이 이탈리아어를 말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북서부 지역의 많은 이탈리아 인들은 프랑스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반면에 슬로베니아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거의 모든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능숙하게 말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과과정에 영어와 이탈리아어, 독일어가 필수라고 한다. 예전에는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최근에 많이들 배우고 있다고 했다. 발음도 영국식이 아닌 미국식 영어발음이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배운다고 했다. 슬로베니아는 구 소련연방인 소비에트 해체이후 동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발전과 개방을 해 온 나라라고 한다. EU에도 가입되어 있어 유로화를 사용한다.

〈음식〉

라딘인들의 음식은 어떤 것일까? 혹시 독특한 것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전통음식이라고 있는데 상당히 상업화 되어 있었고 현대화 되어 있었으며, 이웃 이탈리아어 사용자들이나 독일어 사용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보였다. 다만 이들의 전통음식이라는 까네데를리(Canederli)라는 음식은 일반적인 유럽 혹은 산악지방의 음식과 마찬가지로 계란, 우유, 빵, 버터를 버무려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호두를 얹거나 해서 만든다. 요즘으로 말하면 에너지바와 유사하다. 혹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되

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과 같은 음식도 즐겨 먹는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국문화를 이야기할 때, 가난의 상징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국문화를 ‘가난한 자의 음식’이라고 낮게 평가했다고 한다. 이탈리아 밀라노는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며칠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서울 기준으로 볼 때 북쪽으로 1,000킬로미터는 올라가야 될 만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프랑스 파리의 날씨도 이처럼 상대적으로 온화하다. 하지만 알프스 산악지대는 다르다. 겨울이 길고 혹독하다. 이때 따뜻한 국 한그릇은 소중한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가장 훌륭한 음식일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라딘어 신문인 La USC di Ladins를 발행하고 있는 편집장인 Mr. David Lardschneider씨의 말이다.

지금도 라딘인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북쪽 알프스 인근의 산장이나 마을에서는 한국의 국과 비슷한 것을 쉽게 맛볼 수 있다. 한국과 같이 혹한이 엄습한 겨울에 곰탕과 같은 국을 먹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을 보충하는 아주 훌륭한 식사라는 생각이 든다.



〈그림 8〉 이 음식은 라딘인만의 음식은 아니다. 돌로미티 북쪽 독일어(현재 독일의 독일어와는 다른)를 쓰는 사람들의 음식이다.



〈그림 9〉 이탈리아 밀라노 북쪽에 있는 레꼬(Lecco city) 쪽 산장의 음식



〈그림 10〉 돌로미티에서는 다양한 야생 식재료를 활용한다.

이 사진은 빵에 야생 식재료를 사용한 것이다. 우리나라 양꼬치 구이 식당에서 내어 놓는 것과 같다. 중국어로는 쓰란이라는 야생향신료인데, 빵을 구울 때 넣는다.(이탈리아어로는 쿠미로 cumino, 영어: cumin 중국어: 쓰란(孜然)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초본 식물로, 씨를 향신료로 쓴다.)

음식이라는 것이 뭘 먹고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뭘 왜 안 먹었느냐의 문제라는 말을 읽은 적이 있다. 몇 년 전 프랑스 여배우의 한국 개고기 언급 사건 때 어떤 분이 블로그 댓글에 단 내용이었다. 이탈리아인 역시 거의 모든 것을 다 먹는다. 돼지는 털을 포함해서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단다. 현재 밀라노에도 돼지의 머리고기와 내장 등 기타 부산물로 만드는 요리인 까쏘올라(Cassoeula)를 제공하는 식당이 있다. 이탈리아 북쪽 사람들은 잘 먹지 않지만, 이탈리아 남쪽에서는 소의 꼬리나 소의 발(우족) 등도 즐겨 먹는다.

〈상관례와 경제활동〉

현재 라딘인들의 생활은 다른 주변인(이탈리아인)들보다 좀 더 윤택한 편이다. 많은 라딘인들이 관광업이나 목공예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고, 서로 잘 뭉치고 잘 돕는다. 그리고 이탈리아인들 보다는 독일인들처럼 생각하고 사업을 운영한다. 가령 예를 들어 물건을 흥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을 쳐 받는 것은 정말 독일스럽다.

예를 들면 사과를 산다고 볼 때, 이탈리아인들은 마음에 들면 한~두개 더 덤으로 주기도 한다. 그리고 말만 잘 하면 깎아주기도 한다. 하지만 독일인은 그런 것이 없다. 독일의 벼룩시장에서 물건 값을 흥정하려다가 창피를 당한 적이 있다. 52유로짜리를 50유로에 하자고 흥정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더 이상 거래하지 않으려 했다. 몹시 당황스럽고 기분이 상해 더 이상 흥정을 하지 않았다. 정가를 붙여 놓은 슈퍼도 아니고 벼룩시장이라서

흥정이 가능할 듯 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뒷날 독일 거주민에게 물었더니 독일의 상관례는 거의 대부분 정가표대로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라딘인들은 사업이나 계산 방식에서는 거의 독일인과 같다. 다만 감성은 상당부분 이탈리아인들을 닮은 듯하다.

현재 이탈리아는 소수민족에 대해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 이전부터 라딘인들은 이탈리아의 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받고 있다. 과거 2차 대전 때 산악지역에서 이탈리아를 도와 많은 산악전투에 참가했었고, 그 공로로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본격적인 지원은 1991년 유럽의 소수민족 보호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라딘인들은 법에 따라 과거 그들 조상들이 살고 있던 땅과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용권을 갖도록 허락을 받았다. 각 지역(우리나라로 치면 읍면단위)의 조례 등에 의해 탄탄한 권리를 확보했다. 옛날 법에 따라 확보한 권리를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향유하고 있는데, 주로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목장을 운영하거나 농업시설을 운영한다. 또한 경치가 좋고, 유서 깊은 오래된 식당을 운영한다.

예를 들면 이들은 돌로미티의 주요 지점에서 호텔업을 하는데 그 위치가 아주 좋은 경우가 많다. 주요 지점이란, 스키장 입구라든가 산길 요충지에 몇 백년 전부터 꾸려오던 호텔업을 현대화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고원지대인 돌로미티 전체는 겨울에 눈이 많아 유럽에서도 가장 환대받는 곳 중의 하나이다. 조금만 늦어도 호텔방을 예약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 함부로 집을 짓기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관령의 목 좋은 곳에 위치한 휴게소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리푸조 리스토란페 오스피탈레(Rifugio Ristorante Ospitale, 여기서 Rigugio는 이탈리아말로 산장이라는 뜻이다. 산속에 있는 식당 및 호텔이라는 의미)라는 호텔은 식당으로 더 유명한데 7세기 무렵부터 영업을 했단다. 그러니 1,300~1,400년의 역사를 가진 호텔이다. 이 호텔은 Estrada de Alemagna(독일길이라는 뜻의)라는 이름을 가진 이탈리아의 베니스와 독일의 뮌헨을 연결하는 길의 언덕빼기에 있다. 요즘도 이 길을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전거는 한 달정도, 걷는 것은 3달정도 걸린다고 한다. 알프스를 횡단하는 것이다.

이 호텔의 객실수는 10여개 정도이나, 식당이 유명하다. 바로 옆에는 순례자나 여행객들이 기도하고 갈 수 있게 작은 성당이 있다. 현재 Alverà 가족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근무 중에 주로 라딘어만을 사용한다. 이들의 언어는 암호처럼 자기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다. 이 식당에서 근무하는 다른 이탈리아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탈리아 사람들은 라딘인들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림 11〉 (좌) 호텔 외부 모습과 뷔페식 식단, 세심하게, 잼에도 독일어, 영어, 이탈리아어 3개의 언어로 표기해 뒀다.



〈그림 12〉 (좌) 식당내부 모습 (우)미쉐린(미슐랭) 가이드 소개된 것을 안내하는 입구

이 식당 겸 호텔의 홈페이지는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로 구성되어 있다. 4명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요리를 하거나 서빙을 하고, 4명 아들의 어머니가 카운터를 지키는 가족형 호텔이다. 다른 몇몇 사람들이 이들을 돕고 있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라딘어의 전통과 요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십자군 전쟁의 와중에 중요한 길목이 되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호텔의 역사에 대한 책을 보여줬고, 최근 라딘족 젊은이들도 대도시의 불빛을 그리워한다고 이야기 했다. 식당에서 일하는 이들 4명 형제 중 맏이의 딸은 미국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항상 열심히 새로운 요리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미슐랭 가이드에 매년 등재되었다. 목이 좋다고, 장사가 잘 된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들을 보면서 참 근면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했다.

〈복식〉

오랜 기간 동안 척박한 산에서 생활하면서도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문화를 창조했다. 이들의 전통 복식은 한눈에 봐도 주변과 다르다. 게를란다 스피자(Gherlanda Spiza)는 그곳 12~13세 소녀들이 머리에 쓰던 우리나라의 족두리와 너무나 닮은 장식인데, 이 장식의 사용 유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처녀성의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림 13〉 (좌)게를란다 스피자를 쓴 모습 (우)전통복장을 한 라딘인들

〈언어와 문화 보호 노력 - 매스 미디어의 활용〉

라딘인들은 정기적으로 신문을 발행한다. 그리고 라디오와 TV를 라딘어로 방송한다. 소수이면서도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기 위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험준한 돌로미티 산악지역의 계곡 여기저기에서 살고 있는 라딘인들은 서로 고립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7개 지역 간의 말과 표기법은 약간씩 다르게 변화했다. 물론 서로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차이가 적지 않은 편이다. 우리나라 경상도와 강원도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표기방법 등이 상당히 다르다. 현재 라딘인들은 이 표기법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라딘어 신문인 *La USC di Ladins*를 발행하고 있는 편집장인 Mr. David Lardschneider씨에게 ‘라딘어족은 근면하고 성실해서 남들보다 잘 사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더니, “산에서 살아봐라. 한 시간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는 분명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다. 하지만 부유함이 우리 라딘어족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가난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다. 말하자면 그때는 공통의 목표 같은 것이 있었다. 지금이 위기다.” 하고 한다.

물론 Mr. David Lardschneider씨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 그는 항상

현재가 위기이어야 본인의 입지가 강화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였다 - 인터뷰한 다른 사람들도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일부는 과거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움직이니 더 좋아 질 수도 있다고 했다. 사실 매주 20여 페이지가 발행되는 라딘어 지역신문에, 라디어, TV까지 있으니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디오와 TV 방송은 자체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의 비교적 높은 경제적 자립도와 이탈리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 때문이다. 실증적 연구에서 대중매체(mass media)의 활용이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을 강화한다는 결과도 있듯이 미디어를 활용한 활동은 라딘인이 자신들의 언어를 보호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노력 중의 하나이다.

Mr. David Lardschneider씨는 자신의 아들 Laurin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라딘어식 이름(Larcivn ë i)을 들려줬다. 이 라딘인들의 혈통적 근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게르만과 로마인들이 유럽을 지배하기 이전의 초기 유럽인이라는 내용, 동쪽의 발칸반도 쪽에서 건너왔다는 내용, 혼족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 등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인들의 눈에 나타나는 눈꼬리가 올라가는 것(occhiamandorla 아몬드 형의 눈)은 유럽인에게 별로 흔하지 않은데 자기 아들이나 나의 눈꼬리가 올라갔다고 신기해한다.

2-2. [발꼬데라(Val Codera), 로망쉬의 흔적]

〈위치〉

꼬모시(Como city)는 밀라노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떨어진 곳이다. 그 곳에 있는 호수를 꼬모호수(Lago di Como)라고 하는데, 깊은 산속 협곡 속에 형성된 천연 호수이다. 백두산 천지의 최대 깊이가 384m인데, 꼬모호수는 최대깊이는 407.4m이다. 넓이는 백두산 9.82146km², 꼬모호수는 146km²이다. 참고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가르다호수는 369.98km²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인공호수인 소양호가 16.08km² 이니 대충 짐작이 갈 듯하다. 이렇듯 수심이 깊고, 수량이 풍부해 여름에도 물이 차고 물비린내도 나지 않아 수상 스포츠를 즐기거나 휴양하기에 좋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인근 호텔들의 고객보호 전통이 남다르다. 손님들의 그 어떤 요구도 수용할 만큼 서비스가 뛰어나고 고객정보를 잘 보호한다. 이런 전통 덕분에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유명 연예인이나 부유층에게 알맞다.

이 꼬모호수의 지형적 특성과 그리고 인근 대도시인 밀라노에서 멀지 않은 지리적 잇점, 고객 정보 보호 등의 특징으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호수는 아니지만 가장 아름다운 호수로 손꼽히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한 40~50년 전에 S대기업의 L모 회장이 이곳에 신혼여행 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뒤에 그 회장이 1년에 한 번씩 밀라노 방문할 때

마다 그 근처의 호텔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 호수의 북쪽 끝에 곳에 메졸라(lago di Mezzola)라는 호수가 있고, 이 호수는 호리병처럼 꼬모호수와 연결되어 있어 크게 보면 꼬모호수 옆에 붙어 있는 작은 호수의 하나이다. 하지만, 메졸라 호수도 작은 크기는 아니다.(5.9km²로 2.9km²인 여의도 면적의 두 배이다.)

그 호수 끝에 메졸라(Mezzola)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다. 뒷 산은 깎아 지르는 1,500~1,600미터 높이의 산들이 수직절벽으로 병풍처럼 죽 이어져 있다. 메졸라라는 동네를 지나다 보면 작은 다리가 나온다. 저 산 어디에 있는 폭포나 계곡에서 나오는 물길을 가로지르는 것이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수직절벽 넘어 안쪽에 뭇가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 꼬테라(Val Codera)라는 이정표를 따라 들어가면 산골 동네 안내와 등산로 안내가 나온다. 이런 곳에 길이 있나? 그냥 등산로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단을 오르다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 끝 없는 돌계단의 연속이다.

출발지는 해발 250m정도. 중간에 단 한 번의 평지도 없이 끝없는 계단을 오르다보면 메졸라 호수와 꼬모호수 북단이 한눈에 들어온다. 해발 750미터. 약 500미터를 계단으로 오르는 것이다. 계단 하나에 20cm 라고 보면 최소한 2,000개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다. 여의도에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빌딩이 63빌딩의 지상높이가 249미터이니 딱 2배의 높이이다. 1층에서 63빌딩을 올라가서 또 하나의 다른 63빌딩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쉬운 길은 아니다.

가다보면 길에 놓인 돌들이 경이롭다. 화강암인데, 사람들의 발길에 닳아서 자줏빛을 낸다. 색깔이 참 곱다. 이탈리아에서 본 대부분의 돌들은 석회암이거나 석회암의 일종인 돌로마이트, 혹은 대리석처럼 무른 돌들이 대부분인데 이곳의 돌은 화강암이다. 화강암은 석회암보다 10배 가까이 경도가 높아, 큰 건축물의 기단을 놓을 때 쓰인다, 튼튼하니까!



〈그림 14〉 수령이 오래된 밤나무

산 입구부터 보이던 아카시 나무와 도토리 나무 그리고 잣목들은 어느 순간 밤나무로 바뀌어 있다. 고목이다. 어른이 4~6 명이 팔을 벌려 안아도 다 못 안을 만큼 큰 밤나무들이 즐비하다. 군데군데서 있는 거목 밤나무의 심부를 불로 검게 그을렸다.

주위를 오르내리는 등산객들도 인사를 주고받는다. 중간 중간에 격려를 한다. ‘거의 다와 갑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거의 평지나 다름 없어요....'라고.

가파른 계단 오름이 끝나는 곳에서 계곡 안쪽을 바라보니 저 멀리 선계처럼 보이는 곳에 동네가 보인다.



〈그림 15〉 발 꼬데라(Val Codea) 동네 모습

다시 뒤를 돌아보니, 방금까지 올라 온 곳은 깎아 지르는 절벽이었고 그 왼쪽에는 직각으로 꺾여있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보였다. 아찔하다. 이쪽 내가 서 있는 절벽과 저 건너 마주한 절벽은 정말 거의 서로 붙어 있다시피 한 협곡이고 그 협곡 아래로 물이 흐르는 듯 물소리가 울린다. 메졸라 도시의 작은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이 바로 이 협곡에서 나온 물이다. 마치 붙어 놓은 고무풍선처럼 입구는 매우 좁으나, 안쪽은 넓고 길다.

발 꼬데라(Val Codera). 꼬데라 계곡의 시작이다. 깎아 지르는 절벽사이로 난 길이라 낙석의 위험이 있다는 표지판이 있다. 중간에 길이 험해 낙석의 위험이 높은 곳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덮개를 만들어 놓았다. 약간의 오르내리막은 있으나 조금 전에 올라온 돌계단에 비하면 거의 평지수준이다.

많은 보이스카웃 학생들이 지나간다. 그리고 한쪽에는 10명의 학생들이 보이스카웃 활동을 하고 있다.

초입에서 발꼬데라라는 동네로 향하는 중간 중간에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곳에는 친절하게도 가아드 레일처럼 보호대를 설치해 놨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몇 명 안다니는 이곳에 왜 이렇게 큰 토목공사를 해놨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시멘트 콘크리트로 덮개를 했고, 한 쪽이 방향이 개방되어 있는 반 터널같은 길들이 설치되어 있다. 덮개 위를 자세히 살펴보니 수많은 크고 작은 돌들이 널려 있다. 만일 저 덮개가 없다면 이 길을 가다가 저 돌에 맞을 수도 있는 험지이다.

어느 듯 꼬데라 동네에 도착했다. 입구에는 리푸조(Refugio)라는 산장 겸 간이 식당이 손님을 맞이한다. 음료수며, 맥주, 빵 등을 판매하고 있다. 묵을 경우 1인당 숙박 및 저녁 아침 식사 포함 30유로란다. 이 깊은 산속까지 자전거도 올수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맥주며 물 등을 가져와 판매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곤돌라(물건이동용)를 활용하거나 헬기로 공수 받는다고 한다. 무거운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곤돌라를 활용하고, 식음료 등 간단한 것은 헬기로 공수한다고 했다. 헬기는 매주 토요일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미리 전화를 하면 예약제로 움직인다고 한다.

이곳은 밤(chestnut)이 주식이었던 동네다. 처음 방문 때, 예전에는 이 동네에서 이탈리아를 사용하지 않고 로망쉬어를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다. 좀 더 정확하게 알아 볼 겸 해서 다시 방문했는데, 마침 영어를 비교적 잘 하는 사람을 만났다. 처음 방문 때, 나의 이탈리아어 실력도 소통할 수준이 아니었지만, 이탈리아 밀라노와 그리 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노인)의 말이 밀라노 사람들의 이탈리아어 발음과 많이 달랐다. 나의 많은 질문에 답해주고 통역해 준 사람은 마르코씨다(Mr. Marco Codignano). 원래부터 이 동네 출신은 아니라고 했다. 지금 이 산장에 있는 식당일을 도와주러 온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동네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줬다.

처음 방문 때 이 곳 사람들의 약간 무뚝뚝하면서, 정확한 계산법과 나름대로 규율을 가진 생활 등에서 이탈리아인 - 즉 내가 알고 있는 롬바르디아 이탈리아 인 - 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일례로, 이탈리아인들이 사는 산악 마을 산장에서 따뜻한 물 한잔을 달라고 하면 100% 그냥 준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정확하게 1유로를 받았다.

물론 따뜻한 물 잔의 받침대와 받침대 밑에 작은 티슈도 깔아주는 했다. 우유한잔과 물한잔을 시켰는데, 각각 1유로씩 받았다. 그리고 이탈리아 산장에서는 전혀 그런 설명을 안 하는데, 이곳 산장에서는 이곳 전통 식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매를 권하는 소위 세일즈를 한다. 나름 장사숙이 밝다고나 할까. 또 하나, 산장 속의 식당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놨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투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차에 이 사람들이 로망쉬어를 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탈리아인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약간 흥분한 상태로 이것저것 물어본 뒤 인터넷을 찾았다. 과거에 그들이 살고 있던 발 꼬데라가 200년 전에는 스위스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나이 75세 첼레스티노(Mr. Celestino Pisonli). 약간 거동이 불편한 첼레스티노씨는 이곳 방언을 강하게 사용해서 그의 이탈리아어는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차에 간단히 영어도 하고, 현대식 이탈리아어를 능숙하게 하는 마르코씨가 도와줘서 쉽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첼레스티노씨는 어릴 때부터 이곳에 살았으며,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 동네에 사셨다고 한다. 첼레스티노씨의 할아버지는 로망쉬어를 사용했다고 했다. 다시 이것 저것 기억하시는 로망쉬 단어가 무엇인지 물어봤다. 라딘어와 말을 지칭하는 것 등 몇몇 대표 명사의 발음이 유사했다. 첼레스티노씨의 의견에 따르면, 알프스 산악지역은

5km만 떨어져도 말씨가 다르고, 말씨만 듣고 어느 동네인지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만큼 말이 다르다고 한다.

과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무엇을 주식으로 하고 살았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등등. 처음 방문해서 인터뷰 할 때 내가 알아들은 것이 맞는지 등등을 확인해 갔다.



〈그림 16〉 75세, 첼레스티노(Mr. Celestino Pisoni)씨 (2014년)

Q : 혹시 로망쉬어 아세요?

첼레스티노씨 : 알지. 우리 할아버지가 사용했지. 아주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사용했지

Q : 그럼 알아 들으세요?

첼레스티노씨 : 지금은..아주 몇 개의 단어를 알지

Q : 지금 하실 수 있는 것 있으세요?

첼레스티노씨 : 몇 개는 .. 오래되어서.. 말(키벌루우, 이탈리아어로는 까발로 cavallo)

Q : 왜 사용안하세요?

첼레스티노씨 : 학교에서도 안 가르쳤고, 저 아래쪽 동네사람들도 안 쓰고... 지금 쓰는 이탈리아어도 큰 불편이 없어서... 저곳 아랫사람들은 힘들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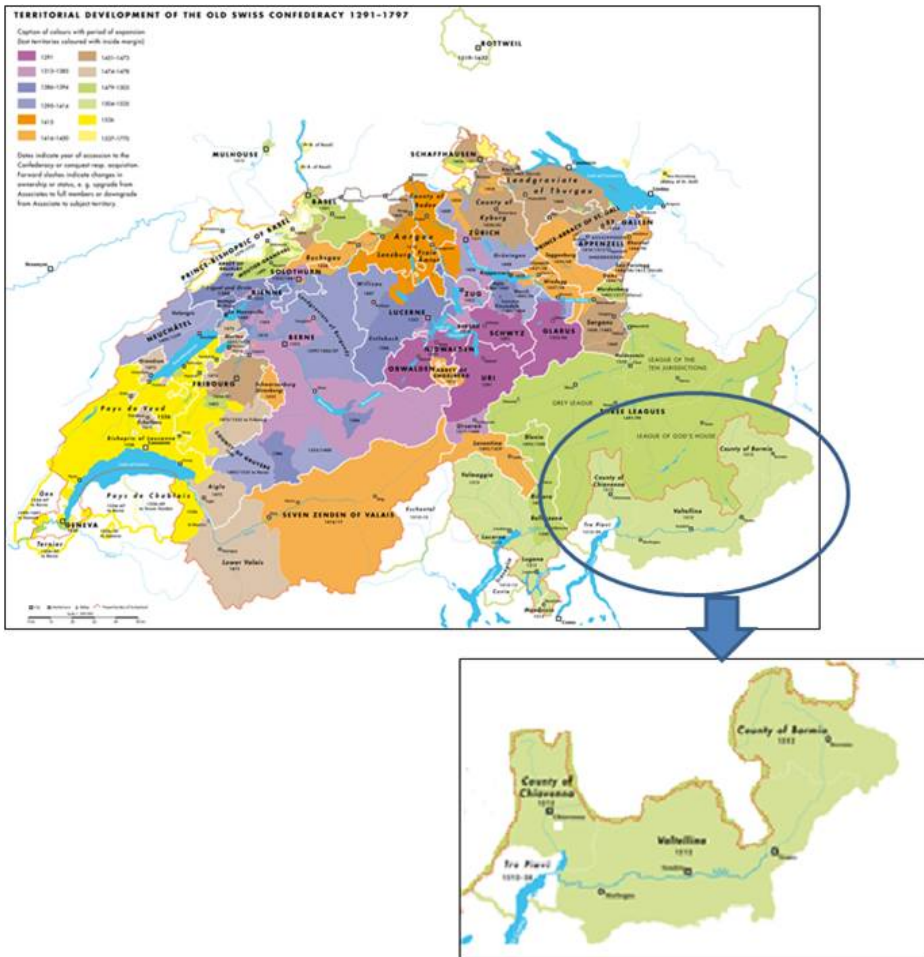
지. 영국사람, 스페인사람, 독일사람 등 다른 나라사람들이 많이 쳐들어왔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신했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양해지니까 말도 섞이고.

이곳은 상대적으로 안전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 전쟁때.

Q : 할아버지가 쓰시던 로망쉬는 어떤 언어인가요?

첼레스티노씨 : 아주 오래된 말이야. 로마시대부터 쓰던. 그리고 나는 더 이상은 잘 몰라...

예전에 이곳은 스위스 땅이었어.



<그림 17> 스위스 땅이 이탈리아 땅으로 변한 곳

첼레스티노씨는 가장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있었다. 일단 몸통이 전반적으로 둥글고 단단해 보인다. 팔뚝을 보면 팔목 둘레 들 팔뚝의 굵기가 굵고, 그 길이가 짧다. 바로 아랫동네인 꼬모호수 근처나 롬바르디아 평원 근처의 팔다리가 가늘어 긴 족속들과는 한눈에 봐도 확 차이가 날 만큼 달랐다. 마치 돌로미티의 라딘인들과 매우 흡사했다. 어느 책에서 산골 등 추운 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몸이 상대적으로 둥글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다. 몸이 둥근 이유는 추위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로 이 땅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스위스 국가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다¹⁾.

‘이 지역(val telliana)은 1512년에 스위스의 땅이었다. 물론 이때 당시 공화국이었던 그라우빈덴(Graubinden²⁾ - 당시 수도는 요즘의 스위스 쿠어(Chur)주에 속해 있었다. 1797년 나폴레옹이 스위스와 이탈리아 지역을 점령한 후, 이곳 주민 발텔리어나(val telliana)인들에게 스위스에 속할 것인지, 이탈리아(치살피네 Cisalpine ; 라틴어로, 우리쪽 지역의 알프스라는 뜻으로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 한 말이나 후에 알프스 준령을 중심으로 남쪽을 의미하는 뜻이 됨)에 속할 것인지를 물었고, 그 결과에 따라 이탈리아에 속하게 되었다. 이때 주민들의 뜻이라기보다는 소수 위정자들의 뜻이 강했고, 위정자들은 그 혼란의 틈을 이용해서 그 인근에 있는 품질 좋기로 소문난 많은 개인 포도원(와이너리)를 몰수했다.’

밭꼬테라는 8개 성씨가 모여사는 씨족 동네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씨가 Pisonli, Penone, Del’pra, Colzada 인데 모두 라딘인들의 성씨다. 2차 대전 전에만 하더라도 거주민이 500명 넘었다. 지금 상주인구는 5~6명. 왜 5~6명이냐고 물었더니 한 명은 아래의 메졸라와 이곳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동네의 많은 집들은 여름휴가용, 혹은 주말용이다. 산골동네라 아무래도 생활이 불편하니 그런 모양이다. 82세 할머니 한 분은 건강해, 자력으로 걸어서 아래 메졸라 마을을 왕래하면서 홀로 살고 있고, 93세 할머니 역시 혼자서 생활하는데, 아래 메졸라마 마을을 왕래하기는 힘들어서 가끔 다른 가족(아들이나 손자 등)과 함께 헬기로 왕래한다.

그날 인터뷰에 응해준 첼레스티노씨와 그 옆에 앉아있던 다른 70대 중반의 남성분 한분과 그분의 아들이 이곳에서 염소를 키우면서 상주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명은

1) <http://www.swissinfo.ch/eng/valtellina--lost-piece-of-the-swiss-puzzle/33152048>

2) 그라우빈덴 주는 세계경제포럼으로 유명한 다보스(DAVOS), 2번의 동계올림픽이 열린 생모리츠(st moritz)가 있는 스위스 연방 26개 주 중의 1개 주로서 스위스에서 가장 면적인 넓은 주이자, 레토 로망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주이다. 영어 표기로는 그리슨 Grisons이며, 로망쉬어로는 그리중(Grischun)으로 발음이 비슷한 편이다.

이곳 산장의 주방을 보는 여성분 이렇게 총 6명이다. 주방을 보시는 분은 여름철 등에 이곳에 상주한다. 겨울철에는 아래의 동네로 내려가고.

과거 많은 외국인들의 침입이 있을 때도 이 곳은 안전했다고 한다.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힘들게 군대를 동원해서 침략해 봐야 얻을 것도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를 침입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길을 올라야 하는데, 그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다.

첼레스티노씨에게 물었다. 과거 할아버지나 어른들께서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것과 독일어를 배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쉬웠느냐고? 첼레스티노씨는 독일어 배우는 것이 더 쉬웠다고 한다. 어릴 때는 간단하게나마 로망쉬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로망쉬어가 이탈리아어와 독일어가 섞인 것이라고 말했다.

내친 김에 집값, 땅값이 궁금해 졌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동네 물가 등등도 궁금했다. 여름철에 천혜의 휴양지가 될 터인데, 가격은 어떤지, 별장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았다.

2층 건물인데, 1층에는 부엌하나, 욕실하나가 있고, 2층에는 방이 있는 집의 가격은 한화로 1억원 정도(75,000유로). 하지만 이곳도 부동산 업자들의 농간이 심한 모양이다. 첼레스티노씨가 말한다. 집을 살 때는 부동산에 가지 말고 이곳 동네 사람에게 대충 물어보고, 그 당사자를 만나서 흥정해서 사라고 조언해 준다.

호가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매기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동네에 두어 집에 “집 팝니다.”라고 써 붙여 놨으니까. 이 동네도 그리스 사태 이후의 불황의 여파가 미친 모양이다. 과거 호황일 때는 이런 곳에 별장을 가지고 여름 한 달을 보내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상의 하나였겠지만 요즘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불황이 닥쳐 이탈리아인들이 힘드니.

발코데라에는 2개의 박물관이 있다. 하나는 이곳의 특산물이었던 화강암 박물관이고, 다른 하나는 민속생활 박물관이다. 먼저 화강암 박물관이 들렸다. 밀라노 두오모 옆에 깔린 돌이 바로 이곳 산품이라고 한다. 그리고 밀라노의 부잣집 벽면과 바닥을 장식하는데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민속생활박물관을 방문했다. 자신들의 주식이었던 밤을 수확하고, 가공하던 기구와 삽화들이 눈에 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산골에서 탄수화물공급원이었던 밤. 가을이 되면 밤을 따서 훈제를 한다. 보관용이다. 음식물의 보관을 위해 훈제하는 것은 게르만인들의 방법이다. 염장법은 라틴인들의 방식인데. 이 곳은 두 가지 방법 다 활용했는데, 밤은 훈제방식으로 보관했다.



〈그림 18〉 (좌) 밤의 품종별로 표기해서 그려놓은 그림, (우)밤을 훈제해서 보관한 모습

밤 품종별로 정리해 놨다. 그리고 밤을 수확해서 관리하고 훈제하던 방법을 잘도 기록해 놨다. 사진 속에 있는 저 여인은 아마도 이 산골의 가난한 살림을 억척스레 떠맡았을 것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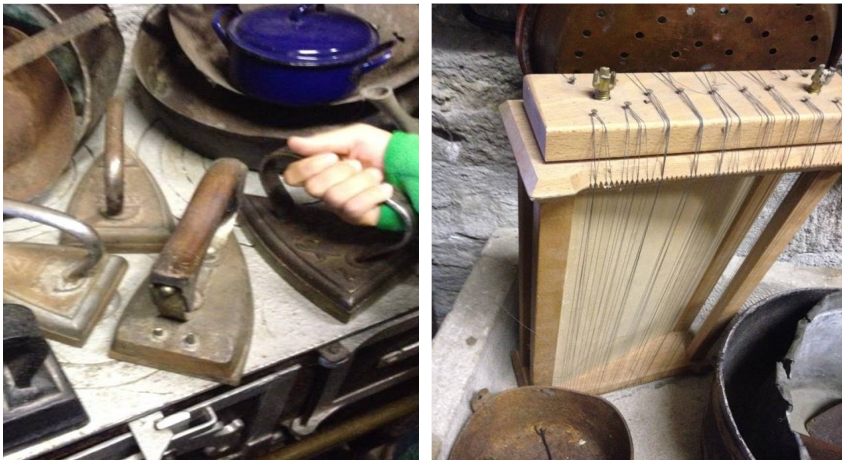


〈그림 19〉 (좌)밤을 수확하고 정리하는 법을 사진으로 남겼다. (우)밤을 훈제하는 그림

그 가난하던 삶은 생활도구인 침대에서 잘 녹아있다. 침대의 충진재로 옥수수숫잎을 사용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프슨(Thomas Jefferson)의 침대가 옥수수숫잎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옥수수숫잎은 다른 풀 등에 비해 침대의 충진재로 더 적합하다고 했다. 하지만 면화와 같은 고급 재료에 비하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림 20〉 (좌) 옥수수잎을 충진제로 사용한 침대, (우)베틀



〈그림 21〉 (좌)철제 다리미, (우)현악기 (이런 척박한 삶속에서도 악기를 제작해서 음악을 들었다)



〈그림 22〉 계단 밭 사진 : 지나가는 행인의 오른 쪽이 밭 뚝. 밭의 폭이 2미터도 채 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상당부분 채집경제에 머물렀을 이들은 농작물도 키웠다. 높이 2.5~3미터의 밭뚝에 넓이라고는 2미터도 채 되지 않는, 표고 경사도 50~60도의 산경사면에 생존을 위한 노력으로 만든 밭이다. 요즘에 묵어져 있다.

특이한 물건이 있었다. 영화 다빈치 코드에 스스로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는 장면이 있다. 쇠로 만든 것인데, 이 지역 성당에 있는 수행자가 사용하던 것이라고 한다. 손잡이 부분인 끝을 잡고 자신의 등쪽을 내리친단다.



〈그림 23〉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채찍
(A metal flogger for religious self-mortification)

이 동네는 이탈리아 보이스카웃의 메카 중의 하나란다. 그 이유는 영국 등 연합군에 반대했던 무솔리니가 보이스카웃 활동을 금했는데, 이 동네가 산속에 있어서 무솔리니 일당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단다. 사진 촬영시기가 1941년! 무솔리니의 철권통치가 절정을 달할 무렵이어서 겁도 났을 텐데 저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다니...



〈그림 24〉 1941년도에 촬영한 보이스카웃 사진

지금도 일 년에 한 두어번 씩 저 계곡을 타고 올라오는 송어를 잡아먹는다는 산골 계곡. 아마 이들에게는 매우 진귀한 음식임에 틀림없다. 주로 산에서 염소를 통해 젖과 고기와 가죽을 얻고, 젖으로 치즈와 버터를 만들어 먹던 이들에게 수산물은 아주 반가운 음식이었을 것이다.



〈그림 25〉 2014년도에 촬영한 사진, 지계를 활용하는 모습

갑자기 설명해 주던 한 노인이 지계를 지고 나타났다. 라딘족들이 사는 동부 알프스 산간지역 뿐만 아니라 중부 알프스 지역인 발 꼬데라(Val Codera)에서 발견한 지계는

한국의 것과 너무나 닮았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기 힘든데, 현재도 주민들이 지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강릉지역의 지게와 다리가 매우 흡사했다. 아마도 나무 원목을 나르거나 할 때 유용한 형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Ⅲ. 이탈리아 남부의 두 소수민족

3-1. 시칠리아의 알바니아(Albania) 마을 - 삐아나 델리 알바네지(Piana degli Albanesi)

시칠리아는 지중해에 있는 제일 큰 섬이다. 면적 25,708km², 인구 약 510만으로, 면적기준 제주도의 14배가 넘는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를 모두 합친 것(25,115km²) 보다 약간 더 넓다. 인구는 약 510만으로 이들 5개 지역의 45%수준(11,469,412 명)이다.

이 섬은 현재도 화산연기를 내 뿜는 에트나(Etna)라는 활화산이 있는 섬이다. 낮에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 때에는 산꼭대기에 화산연기가 몰려 산 정상에 가리고 있고, 육지가 햇살을 받아 따뜻해져 바람이 바다로 불게 되면 바닷가로 길게 드린다. 산의 높이는 고도 3,350m로, 만년설을 머리에 이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 유적지가 있어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세계에서 몰려온다.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이나 부활절기간, 겨울 크리스마스 기간 등에는 물가가 비싸다.



〈그림 26〉 시칠리아섬 에트나(Etna) 화산 (2015년 2월 촬영) : 위의 흰 구름띠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에트나 화산에서 나오는 수증기다.

〈알바니아인 마을〉

이곳에 사는 알바니아인들에 대해서 주위의 시칠리아 인들은 이들에 대해서 큰 반감이 없는 듯 하기도 하고, 약간 다르게 보기도 한다. 다만 많은 현지 이탈리아 인들은 이들을 그리스인으로 잘못 알고 있다. 실제로 100여년 전만 하더라도 이들은 그리스인들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사는 곳을 ‘삐아나 데이 그리치(Piana dei Greci 그리스인들의 언덕 마을)라고 불렀다.

이들은 오늘날 발칸반도의 서남쪽, 그리스와 알바니아 접경지에 있는 곳 출신이다. 과거에는 그리스의 땅인 적도 있으나 현재는 알바니아의 땅이다. 이들에 대한 소개는 위키피디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1488년 8월 30일에 이 마을이 세워졌다고 한다. 비잔틴 제국의 후예들로서 오스만제국(Ottoman Empire, Turkish Empire 혹은 Turkey로 불린다)의 침략을 피해 이곳으로 이주했다. 당시의 귀족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 이주해 왔다고 한다.

1941년 파시스트 정권이 그리스를 공격할 때 이 마을의 이름을 오늘날 부르는 삐아나 델리 알바네지(Piana degli Albanesi)로 개명했다. 정착이후 수백년간 써 오던 지명을 바꾼 것이다. 전쟁 중에 이 마을 사람들은 이탈리아를 위해서 모종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즉 알바니아어를 할 줄 알고,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는 이들이 척후병이나 적진의 정보를 파악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탈리아가 통일 전쟁을 할 당시에 이들은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시칠리아의 지배층에 반대해서 이탈리아 정복전쟁 중이던 외부세력인 가리발디 장군 진영을 도운 것이다.

이 대목에서 다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1861년에 생겨났다. 9개의 작은 국가들로 존재해 왔던 소국들이 오늘날 이탈리아 통일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리발디 장군과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왕에 의해 하나로 통일 되었다. 그 통일과정에서 시칠리아는 가장 마지막에 통일 이탈리아에 합류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때 가리발디 장군은 이들 내부의 지원 덕분에 큰 희생 없이 시칠리아를 정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내부의 지원 세력 중의 하나가 이들이라고 한다. 그 뒤에 2차 대전 때 이탈리아가 그리스를 침략했을 때 이들은 이탈리아 군대에 참여하여 전공을 세웠다고 한다.

현재 관광으로 꽤 유명하다고 하지만 이 마을에는 2개의 여행자를 위한 숙소가 있고, 식당은 3개 뿐이다. 바(Bar)와 비슷한 것이 두 개 있다. 가까운 곳 대도시인 팔레르모로 출퇴근 하는 사람도 많은 만큼 관광객들도 잠깐잠깐 들렀다 가는 모양이다. 이곳은 금은방 세공이 유명하다. 그간 다른 곳에서 보던 것과는 문양이 완전히 다르다. 시칠리아 다른 곳의 사람들이 사가기도하고, 때로는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구매해 가기도 한단다.

그리스 정교를 믿는 이들은 주말 예배 시간에 자신들의 말인 알바니아어로 기도를 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알바니아어를 읽고, 듣고, 말할 수 있으나, 쓰기는 능하지 않다. 대신 이탈리아어는 읽고 쓰고 듣고 말한다. 현재 그리스 반도의 알바니아인들은 러시아 문자와 비슷한 키릴문자를 사용한다.

이들 몇 명에게 왜 알바니아어를 쓰는지 물어봤다. 이탈리아어는 시칠리아의 방언이 매우 심해 내가 알아듣기가 힘들었고, 영어로는 소통이 힘들었지만 원하는 답은 얻을 수 있었다. 이 인터뷰는 길거리에서 행해졌는데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은 지오아끼노씨(Mr. Gioacchino)다. 보통 이런 종류의 인터뷰는 2~3명이 같이 있을 때 하면 더욱 좋다. 왜냐하면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럴 경우 이견을 가진 당사자들간 논의를 통해 보다 실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오아끼노씨와 한 동네에서 60년간 친구로 지냈다는 친구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



〈그림 27〉 마을 중심에 있는 건물에 걸려있는 알바니아 국기

문 : “왜 이렇게 모여서 사나요?”

답 : “가족이고, 친하고, 편하니까! 성당도 있고(카톨릭 정교)”

문 : “왜 알바니아어를 사용하세요? 그 오랜 기간동안? 이탈리아어도 있는데?”

답 : “편하니까!. 그리고 우리니까. 우리는 알바니아 인이니까!”

문 : “알바니아인인 것이 자랑스러운가요?”

답 : “그럼 자랑스럽지!, 얼마 전에 알바니아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어!, 알바니아에서 온 축구팀인데 이곳에 경기를 하러 왔다가 이곳에 들렀지”

문 : “경제적으로 이곳 사람들이 더 부자인가요?”

답 : “그렇지는 않아. 그냥 그저 그래”

문 : “이곳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답 : “600년도 넘었지”

문 :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요즘 알바니아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해요?”

답 : “다는 안통하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어, 그리고 중간에 가끔 서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통하지”

삐아나 델리 알바네지(Piana degli Albanesi) 마을에서 전통음식을 판다는 식당인 트라또리아 산 지오반니(trattoria san giovanni, trattoria는 식당이라는 뜻임)에 들렀더니 온가족이 경영하고 요리해서 서비스 한다. 몇 개의 요리를 시켰다. 알바네지 전통요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주인장 역시 알바니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과거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여줬다. 100년도 더 지난 사진이라고 한다.



〈그림 28〉 100여년 전의 삐아나 델리 알바네지의 젊은 여인들 사진 - ‘삐아나 데이 그리치(Piana dei Greci 그리스인들의 언덕 마을)의 성장한 신부’ 라는 뜻이 세겨진 사진



〈그림 29〉 100여년 전의 빠아나 델리 알바네지의 젊은 여인들 사진 - 마치 로만카톨릭에서 사용하는 미사포와 같은 느낌을 준다. 그리스 정교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이탈리아 본토나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저렴했고, 파스타와 다른 음식들은 맛은 훌륭했다. 그곳 특산물이라는 전통 요리는 양의 내장을 익혀 살짝 구운 것이다. 요즘 다른 지역에서는 잘 쓰지 않는 식재료로 만든 요리다. 물론 가난한 시절에는 많이도 먹었을 터이지만 말이다.



〈그림 30〉 양 내장 구이요리

시칠리아의 알바니아인들의 인구는 큰 변화가 없다. 인터뷰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확인한 통계 자료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온다. 젊은이들은 팔레르모에 일을 하러 나가기도 한다. 그리고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러 가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나 많이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

이들은 삶은 결코 윤택하지 않아보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동체가 와해될 정도로 가난해 보이지도 않았다. 자동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세계적인 관광지가 있어 일거리도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어 보였다. 모국인 알바니아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는 자신들의 언어인 알바니아어 이외에도 이탈리아어와 영어, 프랑스어를 가르친다.

3-2. 이탈리아 남부 - 풀리아(Puglia) 지방의 그리스인, 그리코(Griko)

이탈리아 남부 그리스인을 그리코(Griko)라고 부른다. 이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인터뷰도 부족했고, 관련 정보도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그리코와 혈연관계가 있는 인터뷰이를 만나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른 3개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여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탈리아 본토에는 그리스어를 쓰는 지역이 크게 두 곳이다. 하나는 그리스 남부의 소위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 남쪽 끝의 구두 뒷 굽 부분인 풀리아(Puglia)지방이고, 다른 하나는 구두의 앞창 끝 쪽에 해당하는 칼라브레아(Calabria)지역이다. 두 지역 모두 과거 그리스 식민지였다. 이들 이탈리아 남부 그리스인을 그리코(Griko)라고 부른다.

풀리아 쪽에 사는 그리코들은 살렌티노(Salentino)를 중심으로 10여개의 크고 작은 도시에 살고 있다. Calimera, Carpignano Castrignano de' Greci, Corigliano d'Otranto, Cutrofiano, Martano, Martignano, Melpignano, Soleto, Sternatia, Zollino 등이 주요 도시이다. 이들 도시들은 서로 그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도시들은 그저 수키로 정도 떨어져 있을 뿐이다.

풀리아 지방을 여행할 때, 일부러 이들이 사는 동네를 거쳐 가게 되었는데 길에 도로 표지 등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인터뷰할 사람들을 찾기 어려웠다. 이들이 쓰는 이탈리아어도 남부 지방 방언이 매우 강해서 이해하기도 힘들었다. 이들 이탈리아 남부 그리스인인 그리코(Griko)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제약 상 자세히 관찰하거나, 인터뷰하면서 이들을 이해할 계기가 없었다.

그 뒤에 2014년 12월, 이탈리아 밀라노 수공예품 박람회(L'artigiano)에서 이탈리아 남부 그리스인(그리치)이 자신의 외할머니라는 상인을 만나게 되었다. 밀라노 수공예 박람회는 이탈리아 전역의 각 주에서 각 주별 전시공간을 만들어 각 주의 상인이나 수공예업

자에게 임차한다. 이때 각 주별 전시공간은 상당부분 주에서 지원한다. 이탈리아 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특별한 산업이 없는 남부의 주들은 많은 전시공간을 확보해서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도록 지원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저기 상인들에게 혹시 그리코 인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어느 부스에 안내해 줬다.

‘돌치우미 스텔라 (DOLCIUMI STELLA)’ 라는 후식인 단 것(이탈리아어로 Dolci는 영어의 Sweets를 뜻한다)을 파는 부스에서 만난 그녀는, 자신의 외할머니는 아직도 살아계시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의 외할머니는 요즘 매우 제한적인 몇 십개의 그리스 단어만 사용하며, 자신과는 이탈리아어로 말한다고 한다. 그 몇 십개의 제한적인 그리스어도 보통 가정 내에서 사용한다고 말한다. 그 여인과 남편은 자신들도 그리코들과 많은 관련이 있으나, 자신들은 그리스어를 말할 줄 모른다고 했다.

이탈리아 남부의 경제가 힘들어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게 됨에 따라 이들도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이들이 매우 독특한 복식을 하고, 그리스어를 사용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학교에서 그리스어를 가르치느냐는 질문에, 어린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터넷을 뒤져 그리코에 대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이 곳 그리스어를 말하는 숫자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젊은 층들이 그리스어를 적극적으로 배우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단어가 이미 너무 많이 줄어들어 상용어로서의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는 말도 있었다.

이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인터뷰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지만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이들의 문화와 언어 보존을 위해 노력했던 이곳 출신 시인 도메니카노 톤디(Domenicano Tondi)의 글귀가 가슴에 남았다.

‘로마는 다음의 사실을 기록하고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로마는 그리스를 무기로 이겼지만, 그리스는 예술과 문자로서 로마를 이겼다!” 우리 그리스인들은 이 곳 이탈리아에서 3천년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그리스어를 사용한다. 이 땅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이 땅의 원주인으로서 그리스어를 쓰는 것이다. (도메니카노 톤디, 영광. 살렌토의 그리스어, Ed. Cretesi, 1935)’

‘Roma non ebbe vergogna di scrivere e far conoscere che, se essa aveva vinta la Grecia con le armi, la vinta Grecia vinse Roma con le arti e con le lettere sue. Greci siamo, ma da tremila anni in Italia stiamo... greco parliamo, ma non perché siamo stranieri, ma perché siamo la più vecchia gente del luogo. (Domenicano Tondi, Glossa. La lingua greca del Salento, Ed. Cretesi, 1935)’

IV. 결론

4개 소수민족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그들을 만났을 때의 느낌과 관련 자료 등을 찾아본 결과 4개 소수민족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있었다. 바로 강한 자긍심이었다. 현재 자신들의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탈리아 북부 발코테라의 로망쉬어 사용 집단의 경우도 자신들은 이탈리아 인이 아니라고 한다. 자신들은 로망쉬라고 말한다. 한때 이탈리아 북부 산악지역에서 강성했던 라이티아(Raetia) 왕국의 후예이자, 로마의 후예라는 문화적, 역사적 자긍심과 주체의식이 강하다. 그리치(이탈리아 남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우수한 문화에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시칠리아 알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삶에 강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 차이와 다름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로 강한 군집성과 회귀성이다. 4개 소수민족 모두 자신의 고향과 고향사람에 대해서 애착이 매우 강하다. 그리코들이 모여 사는 살렌토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지만 나머지 3개의 소수민족 역시 매우 강한 군집성과 회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 모여살고 있다. 그리고 강한 군집성과 회귀성을 지닌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음악가로서 정신없이 바쁠 조르지오 모로더(Giorgio Moroder)씨는 매년 여름이면 자신이 자랐던 그 집에서 한 달 정도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외부로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냥 이곳에서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 받는다. 마찬가지로 시칠리아 알바니아인들도 자신의 마을에 큰 애착을 느낀다.

세 번째로 경제적 안정이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교통과 정보가 단절되어 있던 몇 백년 전과는 달리 요즘은 상대적으로 보다 윤택한 삶을 찾아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쉬워졌다. 이탈리아 북부 로망쉬어를 쓰는 발코테라 지역이나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 경제활동이 힘들고 생활이 힘들게 되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해당 집단이 와해되었거나 와해되어 가는 중이다.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라딘인들이나 라딘신문의 편집장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물질주의로만 흐르게 되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그 집단을 유지해 온 정신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네 번째로 자구노력과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법률이나 지역사회의 인정 등에 의한 보호다. 라딘인들이 사는 지역은 자치지역이다. 자치지역은 의료건강, 교육, 복지, 교통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35명의 주민대표 중에 1명이 라딘인이다. 이탈리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마찬가지로 시칠리아의 알바니아 마을도 이정표 등에 자신들의 고유 언어인 알바니아어로 표기하고,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알바니아어를 익히는 등의 자치권을 획득했다.

다섯째 매우 현실적이고 목표지향적이다. 이런 특징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라딘인들이다. 그들은 말이나 행동 모두에서 매우 목표 지향적이다. 뚜렷한 목표 없이 대충 하루하루를 보내다가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주어진 가혹한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이다. 이런 점에서는 이탈리아 북부 발코데라(Val codera)의 로망쉬어족 역시 매우 유사했다. 또한 시칠리아의 알바니아 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왔다. 그들에게 공동의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여섯번째 주변 장점의 흡수하고, 주위의 언어를 익히는 것이다. 라딘인들은 정말 열심히 다른 나라의 말을 가르치고 있다. 다수가 관광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인근의 다른 이탈리아인들이나,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는 북부 이탈리아 사람들과는 또 다르게 열심히 외국어를 가르친다. 시칠리아의 알바니아인들도 자신들의 언어 이외에 이탈리아어와 영어, 프랑스어를 가르친다.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6개의 특징인 자긍심, 회귀성과 군집성,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 자구노력과 법률제정 등 주변의 인정을 획득하는 것, 현실지향적인 것, 주변 국가·민족의 언어를 익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6가지의 특징 이외의 다른 많은 중요한 특징이 있을지도 모른다.

인터뷰와 간단한 문헌조사라는 방법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비교적 짧은 기간에, 현지 언어에 능숙하지 못한 저자 능력의 한계에 따라 본고에 기술한 사항이나 내용에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필자는 오랫동안 실무에서 인터뷰를 통한 사실 확인(Fact finding) 등 사회과학적인 정성조사방법(Qualified research)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했다. 그 일례로, 먼저 개인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주변인에게 되묻거나 다른 의견을 구하는 방법으로 보편적인 인식에 의한 의견인지 아니면 보편화되지 않은 인식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는 한 사람에게 2회 혹은 3회에 걸쳐 유사한 질문을 던져 응답내용의 일관성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언어적 제한점 등으로 인해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추후 이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본고에서 발견하지 못한 내용이나 있을 수 있는 오류를 보완·개선해서 학계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실제적인 발전을 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1. 라딘어족 관련

- Irsara, Siegfried and De Grandi, Cristina(2007), 「1905-2005, Form the “Union Ladina” to the “Union Generela di Ladins dles Dolomites”, 100years of idealism」, Union Generela di Ladins dles Dolomites
- De Ru, Micura(2010), 「Storia dei Ladini Delle Dolomiti」, Istitut Ladin,
- www.alpeuregio.org
- www.europaregion.info
- www.wikipedia.org
- Mr. David Lardschneider, La USC di Ladins 편집장, 2014 (인터뷰, 일부 민감한 내용에 전화인터뷰는 황인경 박사의 통역으로 진행)
- Alverà, Ranzo 가족, Rifugio Ristorante Ospitale, 2014 (인터뷰)
- Mr. Giovanni Comploj - G. COMPLOJ SOPLASES의 가게 주인 (주소 : Gherdëina Str. 45 - I-39047 S. Cristina, Val Gardena, Dolomites, South Tyrol) (인터뷰)

2. 로망쉬어족 관련

- Mr. Marco Codignano, 2014, marco.cordignao@gmail.com (인터뷰, 인터뷰 통역 지원)
- Mr. Gioacchino와 그의 친구 2명, 2014 (인터뷰, 이채운, 이경훈 통역 일부 지원)
- www.swissinfo.ch
- www.wikipedia.org

3. 알바니아어족 관련

- Mr. Gioacchino와 그의 친구 2명, 2014 (인터뷰)
- Trattoria san giovanni의 주인과 그의 가족 2명, 2014 (인터뷰 이채운, 이경훈 통역 일부 지원)
- www.wikipedia.org

4. 그리스어(그리코)족 관련

- DOLCIUMI STELLA의 여사장, 2014 (인터뷰)
- www.wikipedia.org

A Study on Italian 4 Ethnic Minorities

Lee, Chang Hyun

(KOTRA, PhD. of Mass Communication)

This article is to report four minorities in the aspects of linguistically and/or ethnically in Italy.

The author has visited two Alps areas several times, Dolomites and Val Codera, the northern part of Italy, to investigate and interview their way of life and way of thinking toward their life as minorities. On the other way, the author has met two minorities on the southern part of Italy, Puglia and Sicily for 2013-2014.

In Dolomites, there are Ladin people. In Val Codera, there are Romansh people. In Puglia, there are Griko - old Greece people. In Sicily, there are Albanian people.

Ladin, in Dolomites, is one of the strongest minorities in Italy, in terms of their unity power and reserving their culture and language over 2,000 years. Italian Romansh, Val Codera, has lost their own language and lost most of their traditional cultures, however, they are reserving their spirit. Griko has been using their language for almost 3,000 years, however, they are losing lots of their cultures and language. Albanian is still preserving lots of their language and own cultures - they believe Greek Orthodox.

The author argues that 'six important elements' are important in order to preserve the minorities' ethnic group. The six elements are self-esteem, association abilities and returning habit to the society, minimum economic capacity, continuous efforts for their independence and to obtain the recognition of the surroundings, realistic and goal oriented way of thinking, and learning neighbor's languages and strong points.

More researchers could examine their traditional cultures and the reason why they preserve them in spite of the challenged difficulties, and how to survive as lasting minorities.

<Key words> Ladin, Romansh, Griko, Albanian, Dolomiti, Dolomites, Piana degli Albanesi, Italy, Alps, Sicily,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